

고향 떠나 50년

정판룡 저

민족출판사

고향 떠나 50년



정관룡 저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背井离乡五十年 / 郑判龙著. —北京: 民族出版社,
1997. 10

ISBN 7-105-02243-4

I. 背... II. 郑... III. 回忆录-中国-当代-朝鲜
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97)第00733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1997年10月第1版 2006年5月北京第3次印刷

开本: 850毫米×1168毫米 1/32 印张: 15.25

字数: 430千字 定价: 20.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머 리 말

1989년 여름, 나는 생각밖에 한국 광주시 《금호문화》지 편 집부의 정명혜씨에게서 온 감회깊은 편지 한통을 받았다. 사연 인즉 우연한 기회에 내가 전남출신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런분이 중국 연변대학에서 총장직까지 맡고있을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글을 써달라는것이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을 바 로 알자》라는 붐이 일어나고있는데 내가 중국에서 본것과 살아 온 경력을 그대로 쓰기만 해도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리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니 그런 글을 써줄수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고향을 떠나 중국에 온지 50여년, 또 그때까지도 아직 가보 지 못한 고향에서 온 부탁이고보니 나로서는 감회가 깊었다. 고향이 싫어서 떠난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십년을 중국에서 살고 보니 이곳에 익숙해져 고향은 마치 옛말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곳처럼 영원히 갈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다.

어쩌다 고향에서 온 부탁이니 거절할수는 없었지만 막상 쓰 려고 생각해보니 곤난이 막심했다. 우선 나는 문필가가 아니니 글을 잘 지을줄 몰랐다.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 나의 어떤 경력이나 내가 보고 들은 어떤 사실들은 그대로 쓰기 어려운것 들이 많았다. 일제통치시기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생한 일 들은 얼마든지 쓸수 있지만 중국에서 수없이 일어난 문화대혁명 과 같은 정치운동과 그 시기 우리가 겪은 고충에 대해서는 쓰기 어려웠다. 문화대혁명 등은 잘못된 정치운동이라고 이미 결론은 지었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운동은 중국으로 보면 광채롭지 못한

일이며 더군다나 남앞에서 대서특필할것이 못되는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경력을 빼놓고 쓸수도 없었다. 왜냐 하면 나의 대부분 경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정치운동이련 이어 일어나던 바로 그 시기의것이였기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다같이 겪은 민족적인 체험을 빼놓고 나의 개인적인 체험만을 쓸수도 없었다. 나는 써야 하는가 쓰지 말아야 하는가, 쓴다면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망설이였다.

이때 장춘에서 출간하는 《장백산》잡지사에서 이 일을 알고 내 글을 먼저 거기서 내주겠으니 써보라고 하였다. 나의 경력은 중국 조선족지식인의 경력으로는 꽤 전형성이 있으니 쓰기만 하면 꽤 의의있는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이였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잡지에 먼저 나간후 한국에서 나가게 되면 설사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할 말이 있게 될것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1990년초부터 《장백산》지에 몇부분을 시험삼아 내보았다. 제목은 《고향 떠나 50년》이라고 달았다.

얼마간 내보니 생각밖에 독자들의 반향이 좋았다. 나는 여기서 용기를 얻어 계속 써내려갔다. 뿐만아니라 1990년 5월부터는 그것이 또 한국의 《금호문화》지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의 중국에로의 이민은 19세기중엽부터라고는 하나 대량적인 이주는 1910년의 강제적인 《한일합방》및 1931년 9.18사변이 있는 뒤의 일이다. 9.18사변후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을 중국대륙을 침략하는데 있어서의 전략적인 식량기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반도의 수많은 농민들을 강제로 만주벌판에 이주시켰다. 이주자체가 이처럼 강제와 핍박에 의한것이였으므로 중국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부득불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낯선 땅에 와 그 땅에 정을 붙이기까지 겪어야 했던 무수한 고난은 말

로 다 표현할수 없는것들이였다. 1937년 만주땅에 건너온 우리 집도 물론 예외가 아니였다.

그후 우리는 1945년의 8.15광복을 맞았으며 이어 중국공산당의 평도하에 토지개혁, 해방전쟁, 항미원조 등 위대한 역사적 운동에 참가하였다. 1950년대 중엽부터 시작된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의 투쟁과 국내에서 진행된 반우파, 반우경, 민족정풍과 같은 끊임없는 정치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정치적시련을 겪게 하였다. 특히 1966년부터 시작하여 1976년까지 무려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전 중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1976년에 강칭 등 4인무리가 타도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중국은 점차 개방개혁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1930년대에 중국에 이민해온 우리들은 비록 그 이전에 들어온 이주민처럼 처절한 독립투쟁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중국현대사의 큰 시련을 겪었다. 19세기말엽부터 오늘까지의 중국의 역사는 사회대변혁의 역사이며 인민들이 무수한 시련을 겪은 역사이다.

《고향 떠나 50년》은 비록 나의 회상기형식으로 쓰여졌지만 독자들에게 중국의 현대사와 우리가 겪은 고통많은 역사를 일부나마 보여주기 위하여 될수록 매 시기의 사회배경을 소상히 소개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더우기 연변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것이며 또 많은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것이라고 생각되어 될수록 상세히 소개하였다. 여기에 서술된 사건과 인물들은 모두 진실하며 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인 확인과 조사를 거쳤다.

나는 이 회상기가 단순히 나의 개인체험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동포 모두의 현대사체험으로 확장될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은 중국공산당의 평도하에 점차 성장

한 중국 조선족지식인의 경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겪은 곡절많은 운명을 다소나마 보여주게 될것이다.

《장백산》지에 편재된 《고향 떠나 50년》을 민족출판사에서 책으로 내게 되니 한없이 기쁘다. 이번에 출판되는 이 책에는 《장백산》지에 두번 편재되었던것과 내가 새로 보충한것들이 모두 포괄되었기에 나의 회상기로는 가장 완벽한것이다.

끝으로 나의 글을 두번이나 편재하여준 《장백산》문예지와 남영전, 김수영씨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민족출판사에 충심으로 감사할 드린다.

1994년 5월 2일

정 판 룡

차 례

1. 《만주로 가자》	(1)
2. 료하(辽河)의 푸른 물	(6)
3. 우연한 상봉	(13)
4. 하동촌	(19)
5. 광복을 맞던 나날	(25)
6. 《조선의용군이 왔다》	(32)
7. 혁명의 선봉	(37)
8. 부친의 사망	(45)
9. 민족대학	(50)
10. 어려운 학창생활	(56)
11. 《필기잡지》	(63)
12. 조선전쟁의 나날	(72)
13. 초창기 조문학과파의 선생님들	(80)
14. 민족대학의 첫 졸업생	(89)
15. 쓰련류학	(97)
16. 모스크바로 달리는 열차	(106)
17. 모스크바대학	(115)
18. 《모주석이 쓰련에 오셨다》	(124)
19. 솔로호브의 새로운 작품	(135)
20. 쓰련의 조선인	(144)
21. 《대약진》선봉	(153)
22. 결혼	(161)
23. 큰 포부를 안고	(169)

24. 다시 돌아온 모교	(181)
25. 지나간 겨울밤	(193)
26. 늦어진 신희려행.....	(203)
27. 무궁화	(216)
28. 광활한 농촌	(230)
29. 《북경대학의 첫 대자보》	(240)
30. 홍위병(紅衛兵)	(252)
31. 《혁명은 손님대접이 아니다》	(262)
32. 평범하지 않은 8월.....	(272)
33. 《공인선전대》	(282)
34. 농촌으로 내려간 대학	(292)
35. 문화혁명후의 첫 대학생	(301)
36. 《9.13》사건전후	(313)
37. 끝이 없는 혁명	(326)
38. 잊을수 없는 1976년	(337)
39. 회복된 민족대학.....	(350)
40. 따사로운 당의 해살	(365)
41. 서방세계와의 첫 교류	(373)
42. 처음 가본 서방세계(1).....	(383)
43. 처음 가본 서방세계(2).....	(395)
44. 우리 학교에 온 외국인선생	(406)
45. 동훈선생	(417)
46. 학생단식사진	(428)
47. 하와이에서 만난 사람들	(437)
48.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446)
49. 40년을 맞는 연변대학	(455)
50. 다시 찾아본 교향	(465)
략력.....	(481)

1. 《만주로 가자》

나의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이전에는 담양면이라고 하였다.)이다. 담양이라면 우선 참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가 있는 곳마다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마다 대가 있는 곳이 담양이라는 말까지 있다. 이처럼 담양에는 대가 많다. 기실 나는 오늘까지도 고향의 참대는 어떻게 생겼으며 참대밭의 모양은 어떠한지를 모르고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서너살 때부터 형님과 함께 거의 날마다 우리 집 뒤 참대밭에 가서 놀았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일찍 고향을 떠나서 고향의 산천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있지 않다.

그러나 대많은 담양이 내 고향이었던탓인지 50여년간 대없는 만주벌판에서 살면서도 나는 언제나 대를 잊은적이 없다. 출장차로 대가 나는 중국 남부지방에 다닐적마다 나는 대밭만 보면 발을 멈추곤 하였으며 죽순이 나는 계절이면 꼭 죽순을 한아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곤 하였다. 그럴적마다 나의 안해는 《당신은 참대와 무슨 깊은 인연을 맺었길래 참대만 보면 오금을 못쓰는가요.》라고 하곤 하였다. 아마도 담양의 참대는 그 어떤 기인으로 되어 나의 몸에 스며있는 모양이다.

나의 아버지 정봉주(鄭鳳柱)씨는 오랜 죽세공이다.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집에서 참빛같은 죽제품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담양의 농민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한편 죽제품을 만들어 내다 팔아 살림보탬을 하였다고 하나 우리 집만은 땅이 없어 농사는 짓지 못하고 읍내에 있는 한 죽제품회사에 가서 참빛 만

드는 일거리와 재료를 가져다가 집에서 만들어 다시 회사에 바치고 샅전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 집은 담양읍에서는 소문이 난 가난뱅이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스무살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당시 금성면 금월리에 살던 나의 외할아버지 장치운씨가 나의 아버지가 사람은 똑똑하나 집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막내딸 장중대(나의 어머니)를 그곳에 시집보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장치운씨에게는 딸 셋이 있었는데 큰딸, 둘째 딸들은 가문만 보고 똑똑치 못한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막내딸 중대만은 가정경제정황이야 어떠하든지간에 똑똑한 사람에게 시집보내리라 마음먹고 친척들의 권고도 듣지 않고 담양가난뱅이로 이름이 난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한다.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열네살되던 해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는 스무살도 넘은 늙은 총각이었다고 한다.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심지어 밥짓는 솜씨지도 무척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을 구워 만든 도자기술이더라는 것이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실명한 할머니가 계시고 또 아버지는 삼대독자로 근친 하나없이 외도토리로 살더라는 것이었다. 대대로 가난하게 살다보니 가산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읍내 한 죽제품회사에 가서 대부금을 얻어다가 집에서 참빗을 만들어 회사에 바친 뒤 샅전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외할아버지 집에는 땅도 있고 생활도 좀 넉넉하여 가난한 우리 집을 여러모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담양읍 향교리 정문 가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옛집도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사준 것이며 또 봄마다 외삼촌들이 와서 이영을 이어주었다고 한다.

가난한 집에 자식만은 풍년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40세도 되기전에 벌써 아들 셋, 딸 셋을 가진 대가정의 호주로 되었다.

삼대독자로 친척없이 외도토리로 자란 아버지로 놓고보면 이처럼 많은 자식들이 생겨난것이 정씨가문에 운이 트인것이라고 하며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남의 돈을 꾸어다가 참빚을 만들어 파는 그런 적은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자식 많은것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되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형제들은 모두 부모님들의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큰형님은 여덟살되는 해에 보통학교에 들어가 일본말을 몇마디 배우다가 일년도 못되어 학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부모를 도와 참대조각을 깎았으며 누님 둘은 아예 학교문에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들의 일을 도왔다. 나는 그래도 막내가아들로, 태어난 덕택으로 형님, 누나들의 귀여움도 받았으며 만주로 온후에는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 공부도 할 수 있었다.

30년대중엽에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가 심해지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축세공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험악해졌다. 축제품회사에서 주는 대부금의 리자는 올라가고 축제품값은 내려가니 우리 집처럼 대부금을 얻어 축제품을 수공으로 생산하는 축세공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우선 축제품원료를 사기 위해 회사에 가서 달마다 얻어오는 대부금과 리자를 제때에 갚을길이 없었으며 또 집에서 수공으로 만든 축제품들을 회사에 바친다 해도 빚을 제하고나면 별로 남는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쌀을 사자고 해도 돈을 꾸고 누가 병환에 걸려 약을 좀 쓰자고 해도 회사에 가서 돈을 꾸어야 했다. 이렇게 한없이 꾸고 또 꾸 돈은 봄날의 죽순 자라듯 리자가 자라니 가난뱅이 축세공들은 너나없이 모두 빚구렁이에 빠지고만다. 이리하여 1937년 7.7사변(지나사변이라고도 한다.)이 일어날 직전에는 우리 집에서 회사에 진 빚이 수백원이 되어 평생을 물어다다 못물 그런 형편이 되고말았다. 그러던중 1936년 가을 담양

읍경찰서에서는 사람을 구타했다는 리유로 무고한 우리 아버지를 류치장에 일주일간 가두어두고 종신병신이 되도록 때린 일이 발생하였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읍경찰서의 서장놈이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있었는데 그 집에는 망나니아들 한놈이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무슨 일로 하여 아버지와 서장의 망나니아들놈 사이에 말싸움이 생겼다고 한다. 서장 아들놈은 이름난 난봉쟁이로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동네 젊은 아낙네들을 자주 희롱했으며 또 제 애비 세력을 믿고 행패를 자주 부렸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젊은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한번 그놈을 혼내줄 계획을 하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던차 하루는 그놈이 우리 집 개가 그 집 뜰안에 들어가 동을 누었다고 하여 그 개를 렵총으로 쏘아죽인 일이 생겼다고 한다. 이 일이 생긴 뒤 아버지는 그 집에 찾아가 서장놈 아들의 목살을 쥐고 벽에다 두어번 박아주면서 다시 그런 행패를 부렸다가는 두다리를 분질러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그날 밤 읍경찰서의 순경놈들은 아버지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갔다. 서장의 아들을 때렸다는것(기실 때리지도 않았다.)이 죄로 되어 아버지는 꼬박 일주일간 류치장에 갇혀있으면서 못매를 맞았다. 원래 아버지는 건장한 신체를 가진 억센 사나이였지만 일주일간의 못매와 고문으로 하여 종신병신이 되고말았다. 우리는 그날 온 식구들이 울면서 반주검이 된 아버지를 집으로 업고왔다. 얼마간의 치료를 거친 뒤 아버지의 전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집안형편은 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읍의 축제품회사에서는 빚을 갚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경찰서장 아들놈은 톱만 있으면 우리 집 문앞에 와서 트집을 부렸다. 극단적인 곤경에 빠진 아버지는 비밀리에 술가도주할 비상한 결심을 내렸다. 그때 나의 작은 외삼촌인 장기동씨가 제주도에서 점방 하나

를 꾸리고있었는데 먼저 거기 갔다가 보아서 일본 아니면 만주로 가보자는 타산이었다. 당시 우리 고향에서는 막벌이군으로 일본에 간 사람들은 더러 있었지만 만주 땅으로 간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만주에는 땅은 흔해도 마적떼들이 우글거려 여간해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많은 식구들이 앓아 굶어죽으나 만주 땅에 가서 마적들에게 맞아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니 차라리 땅이 흔한 곳에 가서 한때라도 배불리 먹어 보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고 생각하여 그런 비상한 결심을 내린 것이었다.

빛을 피해 출가도주한다는 소식이 빛군에게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파탄되기에 준비는 극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중요한 가장집물들은 외삼촌들을 통해 처리하였다. 얼마간의 려비가 준비된 뒤 우리 일가는 떠난다는 소식을 이웃에도 알리지 못하고 밤차로 담양역을 떠났다. 큰외삼촌이 역까지 나와 우리를 배래다주었다. 때는 바로 1937년의 이른봄이라 집뜨락 과일나무들에는 꽃망울들이 커지고있었다. 선조의 뼈가 묻힌 정든 고향을 도망치듯 남몰래 떠나면서 우리는 모두 울었다. 아버지만은 그래도 만주 땅이나 일본에 가서 살게 되면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달래기도 하였지만 이 출가도주가 그의 고향에 대한 마지막 영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1937년 2월중순 우리는 제주도 모슬포 외삼촌 장기동씨 집에 도착하였다. 외삼촌은 거기서 자그마한 점방 하나를 꾸리고 있었다. 펄박에 의해 출가도주한 부모님이 왜 첫발을 먼저 제주도에 들렀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 아마도 외지에 있는 친척이란 제주도 외삼촌집밖에 없고 또 거기 가면 만주로 가느냐 아니면 일본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외삼촌내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얼마간 모슬포에

있으면서 동정을 살폈다. 그러다가 이 많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기보다 그래도 땅이 혼하다는 만주로 가는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고 제주도에서 인천가는 배를 타고 만주로 가기로 하였다. 외삼촌의 말솜에 의하면 전라도의 한사람이 만주 땅 봉천(지금의 심양) 서랍에서 빗장사를 한다고 하니 우선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것이 좋겠다는것이였다.

만주로 가자. 만주에 가면 땅도 많고 들도 넓다고 하더라. 마적떼들이 옥실거린다고는 하지만 하물며 마적들도 사람들일터인데 우리처럼 불쌍한 생령을 마구 죽이지야 않겠지. 제주도에서도 만주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봉천 서랍같은데는 우리같은 조선사람이 많이 함께 모여 산다고 하더라. 친척은 없어도 어쨌든 같은 겨레들이니 거기에 가면 살길이 나지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기름진 땅이 그리 많다는 만주에 가면 꼭 살길이 있을것이다. 그러니 우선 봉천 서랍이라는 곳을 찾아가보자.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외삼촌내외가 러비로 쓰라고 주는 돈 얼마간을 호주머니에 넣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없는 미지의 세계 만주 땅으로 떠났다.

2. 료하(辽河)의 푸른 물

우리가 봉천역에 도착한 때는 3월중순인지라 고향에서는 북승아, 감나무 꽃들이 한창 필 때이건만 이곳은 아직도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아침, 저녁이면 제법 쌀쌀하였다. 때는 바로 1937년, 북지사변이 일어나던 해여서 봉천정거장에만 해도 오고가는 일본군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역에 내리자 아버지는 큰형님더러 서랍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때 불과 열여섯살밖에 안되던 나의 큰형님은 그래도 소학공부를

얼마간 했다고 하여 몇마디 일본말을 할줄 알았으며 그리고 울
망줄망한 여섯형제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 아버지는 무슨 일이
나 큰형님과 상의하였다. 솜옷을 두텁게 입은 한 중국사람이 서
탑가는 길을 가리켜주었다.

서탑은 봉천역에서 서쪽으로 약 2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
었다. 서탑이란 봉천의 한 주민구역인데 오래전부터 조선사람들
이 여기에 많이 모여살았다. 1900년전까지만 해도 서탑구역은
봉천시가지의 서쪽 변두리로 주민이라고는 별로 없는 황무지에
불과했다고 한다. 1900년 봄에 안봉태라는 조선상인이 이곳에
와 처음으로 점방 하나를 꾸렸는데 그뒤 그것이 인연으로 되어
봉천에 오는 조선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물론
중국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와서 점방도 꾸리고 려관 같은것을
차렸다. 그리하여 서탑구역에는 차차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어
느 옛날에 세웠는지는 잘 알수 없으나 라마교 옛 백탑 하나가
여기에 있고 이 탑이 시내 서쪽에 서있으므로 봉천사람들은 이
구역울 서탑구역이라고 불렀다. 1931년 9.18사변이 있는 뒤 중
국으로 건너오는 조선의 이민이 격증되면서 서탑구역은 점차 봉
천의 조선인집거구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가 그곳을 찾아간
1937년만 해도 서탑구역에는 근 1,000호에 가까운 조선사람들이
살고있었는데 대부분은 자그마한 잡화점을 꾸리거나 품을 팔았
다. 중소기업주거나 부유한 상인도 더러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호구나 겨우 하는 형편이었다.

우리는 점심때가 거의 될 때에야 걸어서 서탑구역에 도착하
였다. 한 조선사람의 소개로 려관집 방 한칸을 얻어 거기에다
소위 이사집을 풀어놓았다. 이 많은 식구가 모두 려관밥을 사먹
는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여 려관집 부엌에 가서 제절로 끓여
먹기로 하였다. 수수쌀 몇되를 사다가 그날 저녁에는 죽을 쑤어
온 식구가 먹었다. 이튿날 아버지는 큰형님을 데리고 여기서 빗

장사를 한다는 그 전라도사람을 찾아갔다. 빗장사를 한다는 그 전라도사람은 조무래기 여섯을 데리고 무턱대고 만주땅을 찾아온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많은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자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여기서는 장사를 하자고 해도 밀천이 있어야 하며 품팔이를 하자 해도 조선사람에게는 일 시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지노릇을 하더라도 제 고향에서 하는것이 낫지 말도 안 통하는 중국땅에서 이 어린것들을 어떻게 먹여살리자고 이런 곳을 다 찾아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고향에는 참빗같은 축제품이 많으니 우리도 그런 장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그 전라도사람은 안된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도 생각뿐이지요. 여기에 조선사람이 얼마 산다고 참빗같은것이 잘 팔리겠습니까? 중국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빗을 쓰기 좋아하지 조선에서 만든 참빗을 안쓴답니다. 설사 팔수 있다 하더라도 밀천이 또 있습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곳에 온지 몇해가 됩니다마는 아직 점방 하나 갖지 못한 빈털터리지요. 린근 조선동네를 돌아다니며 더러 팔아보기도 했지만 수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행히 식솔이 단출하고 온 가족이 막벌이로 무슨 일이나 하기에 목숨은 겨우 이어잡니다마는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간단말입니까?》 빗장사를 한다는 그 전라도사람은 아버지더러 조선에 돌아가라고 극구 권고하였다. 려관에 든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보고 모두 고향에 돌아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서랍구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심양이라는 이 대도시로 볼 때는 뒤꼍목에 속하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주로 아편쟁이거나 거지, 기생, 품팔이군 등 최하층빈민들이 살고있었다. 때는 비록 3월말이지만 거리 어두운 구석에는 밤새에 굶어죽거